

[별첨]

이종화 사단장 갑질 주요 사례

가. 두릅따기

2025년 4월 중순, 부대체력단련시간(15:30-17:30) 시간 중이었던 16시에 이종화 사단장은 말없이 집무실 밖을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수행을 담당하는 피해자도 따라나섰다. 공관 밖, 사단 주둔지 영내 차양대 인근 언덕까지 갔고, 근처에는 두릅나무에 순이 자라 있었다. 그리고 차양대 인근에는 환경정리를 하던 장병들이 있었고 두릅 따는 과정을 관찰 수 있었다. 사단장은 그때까지도 말이 없이 두릅나무에 달린 순을 따기 시작하더니, "보고만 있지 말고 뭐하냐"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도 같이 두릅을 따기 시작했다. 나무가 높아 사단장이 잘 따지 못하니 피해자에게 시켜 "이런 건 네가 따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가방 구해와라"라고 해서 주변에 건물 바깥에 놓여진 군장을 가져왔다. 군장이 가득 차서 군장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두릅을 따다. 두릅을 군장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본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군장에 두릅을 가득 담은 채 이동한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장병도 있었다. 사단장은 복귀 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종이 가방을 가져온 피해자들은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두릅을 가져간 일은 없었다.

나. 닭장 설치

2025년 2월 4주차, 주둔지 산책을 나선 사단장은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네"라고 흘리듯 지시를 했다. 피해자들은 지시에 따라 닭장을 설치하기 위해 공관 뒤에 있는 공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관 뒤는 초목이 있는 공간으로 피해자들이 나무를 수동톱으로 일일이 베어내고 치워야 했다. 피해자들이 하루에 수시간 작업해서 4월 중 완성이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닭장도 자재를 구하거나 설치를 외주 맡긴 게 아니라 나무를 일일이 깎아서 만들었다.

다. 프리스비 경기 중 폭행

2025년 4월 초, 사단장이 예하 직할대장들을 불러도 프리스비 경기를 열었다. 그런데 경기에 뛰는 참가자 한 명이 혼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사단장이 피해자에게 뛰라고 소리치는 사단장, 성큼성큼 오더니 "빨리 와라"라고 하면서 내담자의 뒷허벅지를 한발을 올려 걷어찼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정적을 유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놀란 분위기였다.

라. 예산으로 필라테스 기구 구입

이종화 사단장은 공관 내에 필라테스 기구인 캐딜락을 들여놓을 것을 지시했고, 군수처의 공관용 가구 구매예산으로 쇼파를 구매하는 명목으로 제출해 구매했다. 이에 가구 구매 명목으로 180만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100만원으로는 쇼파를, 80만원으로는 필라테스 기구를 구입해서 공관에 설치했다.

마. 교회 참석 및 주말 운전 강요

이종화 사단장은 매주 일요일 영내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에 피해자 A에게 운전을 시키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종용했다. 주말마다 피해자 A를 불러 관용차량 운전을 지시했고 이종화 사단장의 아내가 가끔씩 같이 동승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인 B에 대해 평소 이종화 사단장은 "종교로 개인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피해자 B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자 "임무인데 빠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고, 병영식당에서의 식사나 티타임 자리마다 "재는 주말에 수행해야 하는데 안 나와"라는 주변 간부들에게 말을 하며 주말 교회참석을 피해자의 임무수행 및 근무태도와 연관 짓는 식으로 피해자 B를 압박했다.